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가족·학교환경·또래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lescents' Runaway Drive:
Focusing on Personal, Familial, School and Peer Variables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배문조
부교수 전귀연

Dept.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Bae, Moon Jo
Associate Prof. : Jeon, Gwee Yeon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sonal, familial, school and pe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adolescents' runaway drive. The 259 subjects were se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 in the city of Daegu.

The major findings of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sp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more runaway drive was, the lower self-esteem was and the higher anxiety, depression, and impulsive mind was.
2. In respect of familial characteristics, the more runaway drive was, the lower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tion was and the higher the degree of parents' rejection was. And the higher runaway drive was, the higher degree of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conflict.
3. In respect of school characteristics, the more runaway drive was, the lower school adaptation was.
4. In respect of peer characteristics, the more runaway drive was, the higher degree of delinquency of peer.

주제어(Key Words): 가출충동(runaway drive),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가족적 특성(familial characteristics), 학교환경특성(school characteristics), 또래관계특성(peer characteristics)

I. 서 론

청소년들이 범하게 되는 많은 반사회적 행위 가운데 최근에 이르러 자주 거론되고 문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가출이다.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의 특성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성장하는 청소년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것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사회 도처에 산재한 비행유발 요인들에 쉽게 접촉하게 됨은 물론 기존의 비행집단이 노리는 직접적, 간접적 비행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시된다.

가출청소년의 수 역시 1996년에 43,731명에서 1997년에는 46,632명에 달하고 있어(문화관광부, 1998)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대구 YMCA 98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첫가출 시기는 중학교 1학년 이전이 40.1%로 가장 많아 가출이 점점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해준다(대구청소년상담실, 1996).

정신의학적 측면에서는 범죄 및 비행의 원인적 설명을 정신분석이론에서 유래된 동기유발(motivation) 및 성격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즉, 행동은 본능의 충동에너지에 의해 동기가 지워지며 자아 및 초자아에 의해 변형된다고 한다(Alexander & Staub, 1956). 그러므로 가출행동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가출충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충동을 연구하는 것은 이미 가출을 한 청소년을 연구하는 것보다 가출예방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출충동에 관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하순인(1997)은 가출자와 비가출자의 가출에 대한 태도차이와 가출충동 원인을 살펴보았고, 남영옥(1999)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윤정(1998)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충동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문제가 가출충동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학생의 가출실태와 가출의식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양한 변인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구체적인 청소년의 가출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 정도에 따라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환경 특성 및 또래관계적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나아가 청소년 비행 예방에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출충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의 지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가출충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가족적 특성의 지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가출충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환경 특성의 지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가출충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 특성의 지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선행 연구 고찰

1. 개인적 특성과 가출

청소년들은 한 사회에 있어서 성인세대와 아동세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격차를 나타낸다는데 그 심리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전유자, 1982).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가출청소년들이 비가출청소년들보다 우울, 불안, 심적 혼란 및 충동성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안창규 등, 1995; 지창희, 1987; Burke & Burkhead, 1989; Englander, 1984; Rohr, 1991).

가출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들 중 장윤정(1998)의 연구에서는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충동

성이 가출충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한 경우의 34.5%가 가출충동을 느꼈으며, 또한 자기거부감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전체의 69.1%가 가출충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정자(1973)는 가정을 이탈하는 아이들의 성격상의 징후를 방일성, 의지부정성, 유약성, 충동성, 경조성, 우울성, 편집성 등으로 보고 있으며 김현수(1980)는 가출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행동 사이에 성격변인(소외감, 철퇴성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철퇴성향인 학업포기 충동과 과음충동이 매개변인으로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가출이나 비행행동과 우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김정원, 1993; 박원규, 1980; 장종옥, 1996; Phillips, 1976)을 살펴보면 청소년가출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우울의 정도가 높은 청소년이 가출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가출청소년의 자기자각, 타인지각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가출청소년은 낮은 수준의 우울, 불안, 자기의심 및 무관심, 부족한 대인관계, 빈약한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경험한다고 밝혔다(Adams, Gullotta & Clancy, 1985; Burke & Burkhead, 1989). 또한 Jenkins(1971), Shinohara와 Jenkins(1967)도 다면적인 성검사(MMPI)를 사용한 조사에서 가출아동은 신경증적 불안이 크며 자아상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밝혀냈다.

2. 가족적 특성과 가출

청소년의 가출과 관련되어 연구된 가족적 특성에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부모양육태도, 학대 및 부모갈등이 있다.

가족응집성과 관련하여 가출청소년에 관한 Steinbock(1977)의 연구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정상청소년 가족에 비하여 가출청소년 가족은 결속력이 낮고 표현을 잘하지 않으며 의존성 및 부모와의 갈등이 많다는 것과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에서 가족원간에 불일치가 심하고 가족내의 갈등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석말숙(1988)은 문제 청소년

가족에게서 가족원간의 갈등, 하위집단간의 불명확하고 혼돈된 경계, 부모와 문제자녀간 연합형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적응성이 청소년 가출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Wolk와 Brandon(1977)은 가출소녀들이 지나치게 엄격한 가족관계내지 지나치게 통제적인 가족환경, 즉 가족내 역할관계 및 규칙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무기력함이나 무능함을 느껴 가출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도수경(1991)도 가족성원간의 낮은 적응성이 가출이라는 문제행동과 관련있다고 보고하면서 가출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했으며 남영옥(1998)은 가족적응성평가가 낮은 청소년 집단이 가출충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적응성이 높으면 가출충동이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부모의 일반적 양육태도와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장윤정(1998)은 부모의 일반적 양육태도인 무관심, 이해함, 간섭함이 가출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가부장적 남아선호 양육경험에서는 가출자의 7.3%가 성차별적 양육경험을 했다고 응답했고 6.5%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영옥(1998)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가출충동 정도는 부모의 양육태도 평가가 낮은 청소년 집단이 가출충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으면 가출충동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MCA 가출청소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환경에서 가출충동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부모님이 이유를 듣지 않고 무작정 야단부터 치실 때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청소년 가출충동의 주요요인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학대는 그 자체로서 가출의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출 후에도 불량또래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손상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대당하는 것은 이들이 아동기 시절 보호받을 수 있는 의존 대상도 없고 학대를 다를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성숙함과 독립도 없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Kurtz 등, 1991). 장윤정(1998)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대 경

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학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출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많을수록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인 자녀양육 방법은 부모자녀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켜 자녀를 가출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Webster-Stratton, 1989). 이런 청소년 가출에 대한 많은 연구들(김현수, 19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이 부부의 갈등이 가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현수(1980)는 부모의 결합형태가 부조화된 부모결합상태인 왜곡된 결혼배합, 신경증적 배합, 음주형 배합, 피상형 배합, 결혼분파 및 편파적 거절형일 때 청소년의 가출충동 및 가출율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했다.

3. 학교환경 특성과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시험실패, 학교성적 부진, 성적 저하로 야단맞음 등 학교 성적과 관련된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스트레스의 강도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황정규, 1990). 대구청소년종합상담실(1996) 연구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에 대하여 만족(16.6%), 보통(56.5%), 불만족(25.5%)이라고 응답하여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1993)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경쟁, 학별 지향적 배분과 가치지향성을 '청소년의 제도적 유해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학생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진로 및 진학 문제가 6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출의 중요요인으로 가정문제(36.1%)나 퇴폐 향락적 지역사회환경(18.1%)보다 입시위주의 학교환경(45.8%)을 들고 있다(YMCA, 1991). 그 밖에도 Rohr(1991)는 가출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교문제들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문제해결기술의 부족, 학교행동문제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업의 압박감과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한

좌절감, 심리적 갈등 등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싹트는 중요한 원인이 있다. 또한 이것 이 가출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에 대한 유혹, 음주, 흡연 기타 약물남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김향초, 1998).

4. 또래관계적 특성과 가출

대부분의 비행행위들은 동료들과 같이 하는데 이는 비행친구를 가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두 방향인데 하나는 비행을 하였기 때문에 비행친구를 사귄다는 것이고(Gleuck & Gleuck, 1957), 다른 하나는 청소년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Liska, 1974).

한국청소년선도위원회(1990)의 가출청소년 찾기 본부가 구출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동기는 불량 친구가 41.9%로 가장 많아서 청소년의 가출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또래끼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정에서 거부당하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또래 관계에서 만족감과 친밀감을 추구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박성수, 1980; Jorgensen, Neumeyer, 1961; Thomburg, & Williams, 1980). 따라서 청소년은 주위의 동년배 집단의 성격이나 특성에 동화되기 쉬우므로 비행친구의 수는 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은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육순연, 1978; 이정자, 1973; 한국형사정책연구, 1993).

손정자(1998)에 의하면 가출시 동반자로 친구 한 명이 34.0%, 혼자 25.6%, 친구 두 명 16.3%, 그 이상이 20.9%로 혼자서 가출하는 경우보다 다른 친구와 함께 가출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그리고 장윤정(1998)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가출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집단의 경우 전체의 15.5%가 가출경험이 있으며 가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는 전체의 0.9%만이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남(1994)은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

적 분석을 위해 소년원생 196명과 소년감별소생 6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청소년의 비행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비행친구, 비행가치, 비행성격, 또래응집력으로 측정된 비행성향으로 나타났고, 소년감별소에 수용중인 비행청소년 10명을 심층면접에서도 청소년을 비행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비행친구와의 사귐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은 친구의 비행성 정도를 기출, 무단결석, 흡연, 타인폭행, 음주, 절도로 보고 연구한 결과 비행성향이 두드러진 친구를 가진 집단의 84.3%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행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또래의 특성상 친한 친구가 비행정도가 심하면 이에 동조하여 자신도 비행, 특히 가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친구의 비행정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정도에 따라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환경특성 및 또래관계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신체발달과 성적 성숙으로 신체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충동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입시라는 사회적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개인적 특성 척도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4점 평정척도로 된 10문항의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59

변 인	구 分	빈도 (%)
성 별	남	125(48.3)
	여	134(51.7)
연령	16-19	259(100.0)
부모님의 동거상태	부모님이 함께 산다	214(82.6)
	부모님이 따로 산다	11(4.2)
	부모님이 혼	6(2.3)
	아버지만 있다	5(1.9)
	어머니만 있다	15(5.8)
	모두안계심, 무응답	8(3.1)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23(8.9)
	사무·생산 판매서비스	174(67.2)
	무 직	22(8.5)
	기타 무응답	40(15.4)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4(1.6)
	사무·생산 판매서비스	128(49.4)
	전업주부	107(41.3)
	기타 무응답	20(7.7)

뢰도는 .80이었다.

불안 및 우울척도는 권미연(1997)이 사용한 불안척도(6문항)와 우울척도(10문항)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각각 .82, .89이었다.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상로, 변창진 및 진위교(1969)가 제작하여 표준화한 성격검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충동성(35문항) 척도를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력(R2)이 3%미만인 문항을 척도에서 제외시켜 (홍두승, 1987) 9문항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각각 .73이었다.

2) 가족적 특성 척도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가는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III(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족

응집성(9문항)은 전체 변량의 34.6%, 가족적응성(10문항)은 전체 변량의 13.0%를 설명하며 각각의 신뢰도는 .88, .83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Rohner(1978)가 고안한 PARQ(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를 손낙주(1996)가 수정·변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어머니 양육태도는 요인분석한 결과 두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49.2%이며 요인별로 수용은 37.0%, 거부는 12.2%이며 각각의 신뢰도는 .92, .86이었다. 아버지 양육태도는 전체 변량의 53.7%를 설명하며 각 요인의 설명량은 39.8%, 13.8%이고 각각의 신뢰도는 .93, .89이었다.

부모의 학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해련(1997)이 사용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척도를 참조하여 총 17문항의 학대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2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59.6%이며 정서적 학대는 전체 변량의 36.8%, 신체적 학대는 1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신뢰도는 .90, .90이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척도는 권영옥과 이정덕(1996)이 Grych 등(1992)의 부모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참고로 개발한 것을 수정·변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57.5%이며 위협은 전체변량의 32.9%, 강도는 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신뢰도는 .89, .87이었다.

3) 학교환경 특성 척도

청소년의 학교환경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학교에서 성적이 나빠 학교에 가기가 싫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62였다.

4) 또래관계 특성 척도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가 가출충동과 관련된 또래관계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권미연(1997)

이 이용한 친구비행척도(예, 근신 및 정학을 경험한 친구가 몇명인가?)를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7이었다.

5) 가출충동 척도

가출충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는 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환경 특성 및 또래관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土 표준편차($M=2.70$, $SD=.94$)를 이용하여 가출충동정도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개인적 특성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충동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에서는 가출충동정도가 낮은집단이 중간집단과 높은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우울 및 충동성에서는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불안, 우울 및 충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표 2〉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가출충동정도	(빈도)	M	SD	F	Scheffé
자아존중감	상	(34)	2.72	.45	4.592*	a
	중	(187)	2.79	.43		a
	하	(28)	3.03	.35		b
불안	상	(34)	2.97	.79	7.268***	a
	중	(187)	2.59	.69		b
	하	(28)	2.28	.76		b
우울	상	(34)	2.75	.84	6.602**	a
	중	(187)	2.32	.75		b
	하	(28)	2.06	.82		b
충동성	상	(34)	2.54	.59	5.527**	a
	중	(187)	2.27	.42		b
	하	(28)	2.20	.49		b

*p<.05, **p<.01, ***p<.001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정원, 1992; 장윤정, 1998; 장종옥, 1996; Burke & Burkhead, 1989)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열등감이 강한 청소년들이 자아의 손상감을 보상하거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은 사춘기를 전후하여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가출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이 가출충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이 긴장완화훈련, 명상훈련 등을 통하여 자신의 불안, 우울 및 충동 같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공동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가족적 특성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가족적 특성을 보면 〈표 3〉과 같다.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 보다 가족응집성을 낮게 지각하였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비가출청소년들보다 가족응집성이 낮다는 배문조(1999)의 연구 및 비행청소년의 가족응집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들(김만두, 1982; 김윤희, 1989; 민하영, 1992; 석말숙, 1988; 손옥주, 1984; 임용우, 1984; Jenkins, 1983)을 지지하고 있다. 즉, 가족응집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결속력이 낮으며 따라서 가족원과의 불일치가 심하여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적응성에서는 가출충동정도가 낮은집단이 높은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남영옥, 1998; 도수경, 1991; Wolk & Brandon, 1977)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과 상황에 맞는 관계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부적응적인 행동의 시발점이 되는 가출충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가출충동이 높은집단이 낮은집단에 비해 어머니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아버지의 경우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아버지가 수용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Kohn과

〈표 3〉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가족적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가출충동정도	(빈도)	M	SD	F	Scheffé
가족응집성	상	(28)	2.45	.74	5.940**	a
	중	(162)	2.80	.68		b
	하	(22)	3.11	.59		b
가족적응성	상	(28)	2.59	.84	4.461*	a
	중	(162)	2.77	.69		a
	하	(22)	3.17	.50		b
어머니	수용	상	(28)	.85	3.586*	a
		중	(162)	.78		ab
		하	(22)	.66		b
양육태도	거부	상	(28)	.48	3.281*	a
		중	(162)	.64		ab
		하	(22)	.48		b
아버지	수용	상	(28)	2.66	7.397***	a
		중	(162)	.81		b
		하	(22)	.69		b
양육태도	거부	상	(28)	.98	5.640**	a
		중	(162)	.61		b
		하	(22)	.57		b
신체적학대		상	(28)	1.73	4.585*	a
		중	(162)	.60		ab
		하	(22)	.27		b
정서적학대		상	(28)	1.61	6.370**	a
		중	(162)	.46		b
		하	(22)	.45		b
부모	강도	상	(28)	.59	6.069**	a
		중	(162)	.65		b
		하	(22)	.50		b
갈등	위협	상	(28)	.72	2.439	n.s
		중	(162)	.81		
		하	(22)	.71		

*p<.05 **p<.01 ***p<.001

Sagarmann(1978)의 연구에서 요보호성으로 판정된 가출청소년이 부모의 거부로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 적대감이 있거나 애정이 결여된 경우 청소년들은 가족 이외에 다른 집단에서 위로받고자 하며 이때에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은 일관성이 없고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훈육함으로서 가출충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의 가출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좀더 수용적인 태도, 즉 자녀의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하며 자녀의 성취에 열성적이고 정서적 욕구에 민감한 양육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필요가 있다(Maccoby & Martin, 1983).

학대를 살펴본 결과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에 비해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중간집단과 낮은집단에 비해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김영모 등, 1993; 이영희, 1993, 1995; 장윤정, 1998; 주영희, 1984; Gorge & Main, 1979; Gutierrez & Riech, 1981; Hughes, 1980)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가하는 학대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출과 더불어 기타 다른 비행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가출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학대는 재가출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취업여성의 증가, 불평등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부모들의 의식을 바로잡아 자녀가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모갈등에서는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갈등의 강도가 높았으며 위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연구(김선애, 1994; 김준호, 1990)와 부부갈등이 가출의 주된 요인이라는 연구(김현수, 19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문조(1999)의 연구에서 보듯이 부부간의 갈등이 반드시 가출이라는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충동을 부추겨 비행으로 빠질 위협이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가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환경특성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학교환경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로 나타나는 학업성적문제, 진로문제 및 선생님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들이 가출충동의 경험내지는 가출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학업의 압박감과 학교문제들은 가정에서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의 중요한 원인이되어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다. 결국 학교와 집안에만 감금되는 듯한 생활은 외부 세계에서의 독립된 삶의 체험에 대한 동경 혹은 탈출 욕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은 적극적 반항행위로 가출을 감행하게 됨은 물론, 때로는 자살에 대한 유혹, 음주, 흡연 기타 약물남용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따라서 입시위주의 학교환경역시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학교행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또래관계 특성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또래관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가출충동정도가 높은집단이 낮은집단과 중간집단에 비해 친구의 비행정도를 높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청소년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독특한

<표 4>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학교환경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가출충동정도	(빈도)	M	SD	F	Scheffé
학교환경	상	(36)	1.81	.60	5.751**	a
	중	(182)	1.48	.46		b
	하	(30)	1.44	.86		b

**p<.01

<표 5>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또래관계 특성의 차이

종속변수	가출충동정도	(빈도)	M	SD	F	Scheffé
또래관계	상	(35)	1.57	.65	4.543*	a
	중	(183)	1.32	.50		b
	하	(28)	1.20	.32		b

*p<.05

그들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고(선희숙, 1996), 이런 하위문화 내에서 청소년들은 행위나 태도에 있어서 또래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펼 수 없고 그래서 또래의 비행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친구의 비행은 자기와 비슷한 집단의 문화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부추김은 물론 비행의 시작과 지속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며 이 시기에는 또래관계의 영향 및 이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가정의 애정적 유대와 더불어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인 부모의 참여를 통해 비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환경 특성 및 또래관계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 우울 및 충동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이 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족의 노력 및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낮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기보다 거부적으로 지각하

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며 부모의 갈등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가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가족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기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공동체 회복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교환경이 지나치게 학력만을 중시함으로써 부적응 학생들을 양산하고, 부적응 학생의 상당수가 가출충동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가출이라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교육풍토를 조성하여 학교 내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가출충동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구의 비행정도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의 특징상 주위의 동년배 집단의 행동이나 특성에 동화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친구의 비행정도는 청소년의 행동과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전한 놀이문화 형성이 절실하며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가출충동정도에 따라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일반학교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분류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출충동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환경 특성 및 또래관계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출충동과 가출행동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실시되어 한 시기에 있어 청소년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가출이 충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화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동일대상을 종단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가출의 원인과 예방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가출충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단일 문항을 사용한 한계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미연(1997). 약물남용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또래관계적 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영옥, 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만두(1982). 청소년가출문제와 그 예방모델에 관한 연구. 강남사회복지학교 논문집, 10.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영모, 권오구, 최경석, 표갑수 공저(1993). 한국아동복지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정원(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현수(1980). 청소년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연구-학생청소년의 가출충동 및 행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남영옥(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3), 222-255.
- 대구YMCA(1998). 대구지역 가출청소년 리포터.
- 대구청소년상담실(1996).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가출의식과 실태.
- 도수경(1991).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백서.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2(1), 112-124.
- 박성수(1980). 문제행동의 교육과 치료. 서울: 배영사
- 박원규(1980).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의 가출원인 및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배문조(1999). 가출청소년의 심리·가족적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석말숙(1988). 문제행동 청소년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선희숙(1996). 가정환경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낙주(1996). 가정환경, 아동의 자아평가와 학습된 무력감간의 인과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손정자(1998). 고교생의 가출과정과 생활에 대한 분석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서울: 집문당.
- 이광호(1992). 지방자치제하 청소년 행정체계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련(199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윤정(1998). 여성청소년의 가출태도 및 예방적 개

- 입방안에 관한 연구-여중생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종옥(1996). 가출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 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지창희(1987). 중학생의 가출원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순인(1997). 사회적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Adams, G. R., Gullotta, T., & Clancy, M. A. (1985). Homeless Adolescents: A Descriptive Study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unaways and Throwaways. *Adolescence*, 10, 715-724.
- Alexander, F and Staub, H. (1956). *The Criminal, the Judge, and the Public*. New York: Free Press.
- Burke, W. & Burkhead, E. (1989). Runaway Children in America: A review of the literature.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12, 73-81.
- Englandar, S. W. (1984). "Some Self-reported Correlate of Behavior in Adolescent Fem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484-485.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rge & Main. (1979). Social Interaction of Young Abused Children: Appeal,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06-318.
- Gutierrez & Riech. (1981).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runaway behavior: its relationship to child abuse, *Child Welfare*, 60, 89-94.
- Hughes, K. A. (1980). The reported incidence of incest among runaway female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Berkeley, 1980).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 4638B.
- Jorgensen, S. R., Thornburg, H. D., & Williams, J. K. (1980). The expression of Runningaway: Perceptions of Adolescents Seeking Help in a Shelter Care Facility. *High-School Journal*, 64, 87-96
- Jenkins, R. (1971). The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168-173.
- Kurtz, P. D., Kurtz, G. L., & Jarvis, S. V. (1991). Problems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103), 543-555.
- Rohr, M. E. (1991). Personality Profile of Adolescent Runaway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Memphis State University.
- Liska, A. E., (1974). "Causal Structure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Involvement and Delinquent Peer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9.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 Y.: Wiley.
- Neumeyer, M. H. (1961). *Juvenile Delinquency in Modern Society*(3rd edition). Princeton: D. Von Nostrand Company, Inc.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0). Circo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Process*, 18, 3-28.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illips, S. B. (1976). The runaway girl: A differentiating profile of personality, family, school and soci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394B.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Y. Prinston University Press.
- Steinbock, L. A. (1977). Nest leaving: Family systems of runaway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4544B.
- Shinohara, M., & Jenkins, R. L. (1967). MMPI study of three types of delinqu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156-163.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 Wolk, S., & Brandon, J. (1977). Runaway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and self. *Adolescence*, 12, 175-188.